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5-12호 / 8월 31일

중국 은행업 개혁의 현황 및 향후 과제

I. 개혁의 배경

- ☐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 협약에 따라 중국 은행산업은 2006년부터 전면적인 대외개방 예정
- ☐ 금융개혁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이며, 또한 은행업이 중국 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은행업 개혁이 중국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차지

II. 주요 현황

- ☐ 국유상업은행 개혁정책의 기본구도
 - 국유상업은행은 장기적인 독점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, 아직도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기 어려우며, 은행의 증자에 있어 비교적 강력한 계획성 및 행정성 존재¹⁾
 -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형성된 부실자산 및 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에서, 국유 상업은행의 경영구조를 개선해, 주식회사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임.
 - 3단계 개혁전략 : 첫번째 단계에서는 각종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처분하고, 두번째 단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며, 세번째 단계에서는 철저한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해 회사의 경영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개혁 조건을 조성해, 완성될

경우 상장까지 모색²⁾

- 우선 1~2개의 국유독자상업은행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 실시³⁾

□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

-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거액의 부실자산은 중국의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소임.
-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가 2003년 11월 밝힌 바에 의하면, 2003년 6월 말 기준,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율은 22.2%에 달했음.
- 2005년 1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의 2004년 말 기준으로 부실채권률은 전년비 4.8%포인트 하락한 15.6% 기록
- 현재처럼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저축률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,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.
-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우량대출을 제공하고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토록 하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함.

□ 국유은행의 소유권 문제

- 오래전부터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유일한 소유자로서,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고, 은행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행사해 왔음.
-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소유권 경계에 대한 효율적인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,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의 경계가 모호하며,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감독 및 통제 메커니즘이 약해진 상황이 발생함.
- 특히 국가가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, 은행은 도산의 염려가 없어 리스크 개념이 약해짐.

III.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한 시범개혁

□ 시범개혁의 현황

- 2003년 중국 정부는 중국은행, 건설은행에 주식회사제 개혁을 시범 실시 시작. 이들 은행에 대한 주식제 개혁은 3단계에 걸쳐 시행
 - 1 단계: 재무 구조조정으로,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자기자본률을 높여 은행의 재무상황을 철저히 개선하는 것임. 이를 위해 2003년 말 정부는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총 미화 450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
 - 2 단계: 회사 관리개혁으로, 현대 기업제도 요건에 따라 은행의 경영관리 메커니즘 및 내부운영 메커니즘에 개혁을 단행함.
 - 3 단계: 증시 상장을 통해 공개기업화 하는 것임.
- 현재까지 두 은행의 시범개혁은 단계적 효과를 거두어 주요 재무 구조조정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결됨.
 - 중국은행 및 건설은행은 국가 후이진투자공사 자본금이 투입된 뒤, 자기자본률을 현저히 높여 세계 선진은행의 평균 수준과 근접해짐.

<표 1> 중국은행 및 건설은행의 개혁실적 (2004년말 기준)

	부실채권률	자기자본률
중국은행	5.12%	8.62%
건설은행	3.7%	11.95%

-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에 있어 “은행마다 다른 방식 적용”의 원칙에 따라 2개 은행에 다른 개혁방식이 적용되고 있음.
 - 중국은행은 전체를 중국은행주식회사(中国银行股份有限公司)로 개조, 중앙회금공사(中央汇金公司)에서 독자적으로 발기, 설립
 - 건설은행은 분리 구조조정 방식을 통해 중국건설은행투자유한책임공사(中国建银投资有限责任公司)와 중국건설은행 주식회사(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)를 설립
- 이들 은행의 기업지배구조(公司治理)개혁은 이미 시작됐으며, 이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건, 이사회 등 조직기관 설립 및 고위경영자 인선이 이미 마무리됨.

- 향후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, 지분 소유구조를 다양화하고, 업무 프로세스를 개조하며 정보기술 수준을 높여, 경영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일 계획

☐ 국유 상업은행 상장시기 논란

- 현재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시기가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
- (상장신중론) 교통은행의 홍콩증시 상장은 중국 국유 상업은행 상장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하나, 4대 국유상업은행들이 단기간내에 서둘러 해외상장하는 것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병존
- (조기상장론) 단기간내에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,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도 새로운 부실자산으로 상쇄돼 무효가 되거나, WTO 가입의 과도기가 마무리된 이후 상장할 경우 국유 상업은행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.

IV. 향후 과제

☐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 상장에 있어,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

- 공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에 의해 교통은행의 선두 상장이 다른 은행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.
- 은행의 상장시기 배치에서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. 국유 상업은행의 기업 관리수준 제고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, 외부적인 지원도 있어야 완결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상장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

☐ 민간경제에 은행업 개방

- 중국 은행들이 2006년 이후 외국자본과 경주하기 위해서는 현상치료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
- 민간은행 개방 시범실시를 시행해야지만 제도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, 점차로 효율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국유 상업은행의 개혁을 추동할 수 있음.
- 시장경제의 미시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 이외에 민간기업 발전에도

힘써야 함.

- 향후 금융업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 이전 민간경제에 금융업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금융개혁 도상에서 민간금융 발전을 중시해야 함.⁴⁾ **(完)**

-
- 1) 국유은행의 효율이 낮은 것은 아직 효율적인 경영구조가 확립되지 못했고, 업무가 빈번히 행정목표에 부합돼야 하며, 내부통제가 불완전하고, 단속기제가 불완전한데다, 인력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잉여인력이 과다해,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고, 신용평가 능력 및 정보 공시제도가 불완전하며, 간부가 관료화 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
 - 2) 2003년 12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리우밍캉 위원장이 밝힌 내용으로 당시 중국정부의 국유상업은행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의미
 - 3) 중국은 현재까지도 은행산업 진입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, 4대 국유 상업은행(중국은행, 건설은행, 공상은행, 농업은행)의 자산규모가 전국 금융자산의 90%, 이들의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70% 차지
 - 4) 본문은 《中华工商时报》 2005년3월4日, 《人民日报》 2005년3월21日, 《新华网北京》 2005년 5月19日 등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